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Tel** 02. 765. 3011~3

01 2019 | Vol. **561**

함박 눈이 내리던 어느날…(牡丹雪降るある日)
Photo : KIM TAEYONG_아키타_제5회 한일포토콘테스트 아키타현상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 신년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울러 여러분 모두 건강한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한일본대사로서 서울에서 세 번째 새해를 맞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기도 합니다.

2018년을 되돌아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실로 크게 움직인 한 해였습니다. 평창 올림픽 · 패럴림픽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6월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작년과 비교해 작년에는 이곳의 분위기도 꽤나 변한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일한 양국 사이에는 작년 2월 아베(安倍)총리께서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방한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셨습니다.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한중 3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일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세 차례의 일한정상회담과 일곱 차례의 일한외상회담이 이루어져, 양국 고위급 사이에 소통이 유지되었습니다. 10월에는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1998년에 오부치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일한 파트너십 공동 선언 2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려, 이 선언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즈음 일한의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와 걸맞지 않은 움직임이 한국에서 이어지고 있어 일한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점은 유감입니다. 한국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일한 관계가 다시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양국의 정치 관계가 엄중한 시기에도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 지역 간 교류는 계속 되어야 하며, 이런 때일수록 교류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실천하는 동시에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견실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고노(河野)외무대신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일본에서는 전문가 회의, 한국에서는 태스크포스가 설치되어 문화 교류와 관광, 인적 교류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한 양국의 방문객 수는 해마다 증가해, 이제는 연간 1000만 명이 교류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올해도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에서는 6월에 G20 오사카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또, 일본 각지에서 다양한 각료회의 등이 개최됩니다. 이와 같은 기회를 염두에 두고, 일한의 고위급이 내실 있는 회담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저 자신도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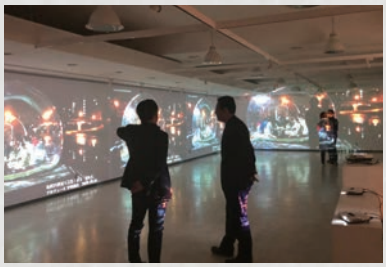
올해는 헤이세이(平成) 시대와 이별을 고하고 즉위의 예를 갖추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2019년이 알찬 한 해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일본대사관 직원 일동,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일본계 기업 관계자 여러분과의 협력을 통해 여러분의 일과 삶, 교육 등 다방면에서 온 힘을 다해 지원할 생각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2018년 주한일본대사관 활동

2018 신년일본문화소개전
일본의 설풍경전 & 다카라즈카시수공예협회 작품전
1월 10~20일



동아시아 문화교류사 모리카와 히로토 전시회
가나자와 현재 몽환
3월 6~12일

이케바나 오하라류 전시회
아름다운 꽃의 만남
5월 31일~6월 1일

제7회 전국 고등학생 일본어 스피치 대회
6월 23일

만엽 예술로 고대 일본의 로맨스를 엿보다
스즈키 야스마사 · 기쓰노 에이지 · 스즈키 세이란 만엽전
7월 9~13일

2018 여름일본문화소개전
(전통설탕공연 아메자이쿠 특별실연회)
7월 25일~8월 7일(8월 3, 4일)

2018여름일본문화소개전
(전통악기 고토 미니콘서트 & 고토 체험)
7월 25일~8월 7일(8월 7일)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Seoul
9월 9일

제7회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대회
9월 29일

제14회 한일교류 말하기대회
10월 13일

제7회 대학생일본어연극대회
11월 17일

제5회 한일포토콘테스트
시상식 및 우수작품전시회
12월 14~20일

실패도 경험,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국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오기 히토시(扇仁志) 씨. 세계 각국에서 온 출연진과 함께, 방송에서 일본 대표로 일본을 소개하고, 나아가 한국과 한국인과의 교류 등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온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진정한 교류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신년을 맞아 오기 씨가 직접 그린 새해 일러스트도 함께 소개한다.

한국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대학 시절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언어의 매력에 끌려서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선은 어학 실력을 키우기 위해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외교관을 꿈꾸던 시기도 있었지만, 장래를 모색하는 가운데, 지인으로부터 돌연 '비정상 회담' 출연 이야기가 날아왔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미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애니메이션 관련 회사에 취직해서,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을 목표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원래 프로그램 제안도 출연 가능한 친구를 소개해 달라는 의뢰였지만, 좀처럼 얻기 힘든 기회라 제가 하겠다고 해버렸습니다.

프로그램 출연이 큰 도전이었나요.

대학교수님으로부터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단지 제자리로 돌아갈 뿐이다'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플러스알파다. 실패한 것도 경험이니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 방송 출연을 결정했을 때도, 그 후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잘 될지 보장

韓国に関心を持ったきっかけは。

大学生の頃,韓国語を勉強し始めたのがきっかけでした。その後,言葉の魅力に惹かれ,韓国に関わる仕事をしたいと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が,まずは語学力を高めるため,留学を決めました。外交官を目指した時期もありましたが,将来を模索する中で,知人を通じて突然「非首脳会談」出演の話が舞い込んできたのです。実は,その時はすでに以前から関心のあったアニメ関連会社への就職が決まり,有名なアニメ監督になることを目標に働き始めたところでした。番組出演も元々は出演出来そうな友人を紹介してほしいという依頼だったのですが,なかなかない機会なので自分が立候補してしまいました。

番組出演は,大きな挑戦でしたか。

大学の教授から,「挑戦して失敗したらマイナスになると思う人が多いが,ただ元に戻るだけだ」と教わりました。私は,「むしろ,プラス・アルファになる。失敗したことも経験なので挑戦しない理由がない」と思っています。この考えが番組出演を決めた際にも,その後の人生にも大きいな影響を与えています。

上手くいく保証のない挑戦でしたが,その一歩があったからこそ,その後,何か新しいことに取り組む時にも,怖さがなくなりまし

도 없는 도전이었지만, 그 한 걸음이 있었기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낯선 나라에 뛰어든 인간으로서 크게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많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방송 출연 시 에피소드는.

'비정상 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은 각국에서 모인 외국인이, 각각 자국을 대표해서 발언하는 토론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일본인은 어려서부터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끼어들어 제 의견을 피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주위와 토론하는 동안에 제가 말하고 싶은 화제가 지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어느새 제 의견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어였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 반 동안 제가 성장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영향일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어는 물론 일본어로도 분명하게 의견을 말하게 되면서, 대학 시절 친구가 놀라기도 했습니다. 언어에 의해 자신의 성격이 변한 듯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책임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처음에는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 발언을 해도 좋을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의외로 출연자의 발언을 한 개인의 의견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조언을 듣고 나서부터는, 어깨의 힘이 빠지면서 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난한 말만 했다。見ず知らずの国に飛び込んだ人間として,大きな一歩を踏み出さなければ,見えない世界はたくさんあるということを伝えたいです。

番組出演時のエピソードは。

「非首脳会談」という番組は,各国から集まった外国人が,それぞれの自国を代表して発言する討論形式の番組です。日本人は,幼い頃から自分の意見を積極的に発言することに慣れていないため,自分も誰かが話をしている時に割り込んで,自分の意見を主張するという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周りが討論をしているうちに自分が話したい話題が終わってしまったこともありました。しかし,回を重ねるうちに,いつの間にか自分の意見をはっきりと話せ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れは韓国語だったからこそできたことかもしれません。1年半を通して自分が成長したように感じました。番組の影響かもしれませんが,韓国語はもちろん日本語でもはっきりと意見を言うようになり,大学時代の友人がびっくりしています。言葉によって自分の性格が変わったようですね。

日本を代表する立場として責任感を感じたことは。

最初はすごくありました。だからこそ言葉が出てきませんでした。常にこの発言をしてもよいかどうか頭の中で考えながら話をしていました。しかし,視聴者は意外にも出演者の発言を一個人の意見として受け止め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助言を聞いてからは,肩の力が抜け,自分の意見を言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最初は,無難な話ばかりをしていましたが,視聴者はイエスかノーか,はっきりとした意見を聞きたがるので誤解を生まない範囲で自分の意見を話すよう努めました。何か主張をする時は,常に自分の意見と共に,異なる見方も紹介し,それがあくまで一つの見方だということを示すようにしていました。

扇さんを通じて日本に関心を持ったという人も多いと思いますが,そのようなことを実感する瞬間はありますか。

街で声をかけられ,「扇さんのおかげで日本に興味を持ちました」,「面白く見ています」とダイレクトに言ってくれるので,大変嬉しくやりがいを感じます。自分の話がブログに書かれたり,記事化されているのをみて自分の役割を改めて実感しました。

지만, 시청자들은 '그렇다, 아니다'라는 명확한 의견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제 의견을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할 때, 항상 제 의견과 함께 다른 의견도 소개하면서,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견해라는 점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오기 씨를 통해 일본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이를 실감하는 순간이 있나요.

길거리에서 '오기 씨 덕분에 일본에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라며 스스럼없이 말을 걸어주실 때, 매우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제 이야기가 블로그에 쓰이거나, 기사화된 것을 보고 자신의 역할을 새삼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풀뿌리 교류란.

교류는 사람과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의 음악, 드라마, 영화를 보는 경우는 있어도, 실제로 일본인과 대화를 해 본 사람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서로 친구가 되면 진정한 교류로 이어질 수 있고, 오해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어 강사를 하고 있는데, 강사로서 한국인 학생과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통해 진정한 교류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교류의 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꿈이나 목표는.

방송 출연 이래, 인생에 뭐가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장기적인 인생 계획을 세우던 것을 그만두고, 길어야 1년 단위로 목표를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그림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림은 세계 공통으로 누구나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일본어 교사로서 그림을 통해 일본어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국의 교류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국어에서 한국 문화를 알게 된 것처럼, 일본어를 통해 일본 문화를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림 실력을 키워 양국의 가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日韓の草の根の交流とは。

交流とは,人と接すること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日本の音楽,ドラマ,映画を見ることはあっても,実際に日本人と話をしたことのある人や友達がいる人は少ないです。お互いに友達ができれば,本当の交流に繋がると思いますし,誤解から生じる問題があっとしても解くことができます。私は今,日本語講師をしていますが,講師として韓国人の学生と友達になることもあります。このように人を通して真の交流が始まると思いますので,今後もそのような交流の場を作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今後の夢あるいは目標は。

番組出演以来,人生何があるかわからないという考えから,人生の長期的なプランを立てるのはやめ,長くても一年単位で目標を立てるようにしています。今年は,幼い頃から好きだった絵で人を幸せに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絵は世界共通で誰でも観て感じることができます。また,日本語教師として,絵を通して日本語を表現することも可能です。日韓交流に繋がるかもしれませんが,私も韓国語から韓国の文化を知るようになったように,日本語を通して日本の文化に接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日本」を伝える一つの方法として絵を極め,日韓の架け橋になれたらと思っています。

포항국제불빛축제의 퍼레이드에 참가

니가타현 조에츠시와 포항시의 자매도시 교류

매력이 넘치는 조에츠시

니가타현 조에츠시(新潟県 上越市)는 서울과 같은 위도에 있으며, 면적은 약 974㎢, 인구는 19만 4,000명인 도시다. 예로부터 교통 요충지로 번영해 온 조에츠시에는 중요 항만인 나오에쓰항(直江津港)이 있고, 부산항과 정기 컨테이너 항로가 열려 있어 거점항구로 발전하고 있다. 나아가 다수의 고속도로망이 정비되어 있으며 호쿠리쿠 신칸센도 개통된, 알찬 교통 · 물류 인프라를 자랑하는 호쿠리쿠 지역에서 집객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조에츠시에는 광대한 평야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를 둘러싸듯이 2,000m급 산이 늘어서 있다. 또 바다로 시선을 돌리면, 해안선에는 모래언덕이 이어지고 깨끗한 해수욕장이 펼쳐진다. 이처럼 조에츠시는 다양한 바다, 산, 대지의 모습을 지닌 풍요로운 자연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비옥한 토양과 미네랄이 풍부한 눈 녹은 물, 한난의 차가 있는 기후로 벼농사에 적합한 환경이며, 고품질 쌀을 수확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 양질의 쌀을 사용한 주조도 활발하여 조에츠시 특산품이 되고 있다. 한편, 바다에서 싱싱하고 신선한 어패류가 많이 잡혀, 조에츠시에는 풍요로운 자연이 빚어낸 맛있는 음식이 많다.

볼거리도 다양한 조에츠시

• 다카다성 백만인 벚꽃놀이

4월이 되면 조에츠시 중심부의 다카다 공원(高田公園)에서 다카다성 백만인 벚꽃놀이(高田城百万人観桜会)가 개최된다. 다카다 공원과 그 주변을 포함해서 약 4,000그루에서 벚꽃이 만개한다.

공원을 상징하는 산주야구라(三重櫓, 망루)와 함께 약

환상적인 밤 벚꽃과 다카다성 미에노

3,000개의 등불과 해자의 수면에 비치는 벚꽃은 '일본 삼대 밤 벚꽃'의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아름다우며, 보는 사람에게 봄의 기쁨과 감동을 전한다. 벚꽃놀이 기간 중에는 공원 내에 조에츠시 특산품 판매 부스를 비롯해서 약 300개의 노점이 들어서 벚꽃뿐만 아니라 식사도 즐길 수 있다.

• 조에츠 연꽃축제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다카다 공원에서 조에츠 연꽃 축제(上越蓮まつり)가 개최되어 분홍색과 흰색 등 다양한 색의 연꽃을 볼 수 있다. 약 19ha에 이르는 다카다 공원의 외부 해자 가득 피어나는 연꽃의 규모와 아름다움은 '동양 최고'라 일컬어지고 있다.

수족박물관, 우미가타리

• 수족박물관, 우미가타리

2018년 6월, 다채로운 매력으로 가득한 수족관 '우미가타리'가 오픈했다. 세계 제일의 사육수를 자랑하는 마젤란 펭귄, 전국적으로도 희귀한 흰돌고래, 퍼포먼스가 압권인 밴드돌고래 등 볼거리가 많다. 오픈 이래, 많은 방문객이 찾으며 조에츠시의 새로운 장소로서 인기를 얻고 있다.

포항시와의 교류 계기

니가타현 조에츠시와 포항시가 교류하게 된 계기는 약 25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10월, 니가타현은 한국과의 교류를 더한층 추진하기 위한 거점으로 니가타현 서울사무소를 개설했다.

한국과 교류를 촉진하는 가운데, 1992년 4월 조에츠시의 나오에쓰(直江津) 로타리 클럽과 서포항 로타리 클럽이 자매클럽 제휴를 맺은 것을 계기로 조에츠시와 포항시

야간조명을 밝힌 벚꽃 길

의 행정 직원과 경제계의 왕래가 시작되었다. 또 1996년 4월, 조에츠시와 포항시 그리고 중국 곤춘시(琿春市)가 3개 도시 간 트라이앵글 교류를 위한 '국제 경제 · 문화 교류 공동선언'에 조인했다.

조에츠시와 포항시의 우호도시 교류

1996년 '국제 경제 · 문화 교류 공동선언' 조인 후, 두 시에서는 행정 대표단과 의회 의원의 상호 방문 이외에 행정직원의 상호 파견사업, 중고생 홈스테이, 교향악단 합동연주회, 다도 교류 등 시민 중심의 교류사업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두 도시 간 상호 이해와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해왔다.

2016년에는 조인 20주년 기념으로 3개 도시가 조에츠시에 모여,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상호 교류를 실현해 갈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에 서명했다.

2017년에도 조에츠시는 포항시에서 개최된 '포항국제불빛축제'에 참가하여, 국제 거리 퍼레이드를 통해 조에츠시 관광 홍보를 하는 한편, 두 도시의 다도 단체가 다도 시연이나 오모테나시(정성을 다한 환대)를 통한 문화 교류를 했다. 12월에는 포항시립교향악단이 조에츠시에서 개최된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참석해 조에츠 시민 취주악단과 조인트 콘서트를 열어, 조에츠 시민에게 조화로운 멋진 연주를 선보였다.

또, 2019년 1월에는 포항시 고교생이, 조에츠시에서 학교 교류와 홈스테이를 하면서 다른 나라 친구를 사귀고, 새로 생긴 수족박물관을 견학하며 눈 쌓인 조에츠시의 매력을 만끽할 예정이다. 이처럼 조에츠시는 행정 대표단뿐만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된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상호 교류를 추진해 가고자 한다.

(집필: 조에츠시, 협력: CLAIR, Seoul)

해자에 활짝 핀 연꽃

포항차인회와 다도 교류

패션피플의 성지! 일본의 홍대 거리 '우라하라주쿠'

박수민 일본문화원 리포터(4기)

여행 계획을 세우다 보면 맛집, 관광지, 볼거리를 검색하기 시작하고, 기계로 찍어 낸 듯 누군가 짜놓은 계획에 따라 여행한다. 나는 누구나 가는 유명 관광지보다 현지인이 즐겨 찾는 곳을 발견하기 위해 무작정 걸어 다니길 좋아한다. 가이드북은 정보용으로 참고하고 자신만의 스폿을 발견하기 위해 그냥 걸어 보는 것은 어떨까.

젊은이들의 패션 문화의 시초! 하라주쿠 거리

지금의 하라주쿠는 매년 여러 나라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유명한 관광지와 별반 다를 바 없게 되었다. 하라주쿠를 방문해서 다케시타도오리에서 사진을 찍고 거리를 걷다가 파르페를 먹고 아이 쇼핑을 한다. 하라주쿠 거리는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 '하라주쿠 족'이라 불리는 젊은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뽐내는 패션 거리의 메카가 되었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관광객은 하라주쿠에서 패션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언덕 위에서 사진을 찍고 디저트를 먹는 것으로 끝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다.

JR 하라주쿠역부터 수많은 인파 속을 거닐며 천천히 내려오다 보면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때 대부분의 관광객은 주요 관광 포인트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오모테산도힐즈 같은 큰 거리가 있는 시부야나 신주쿠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 하지만 우라하라주쿠의 매력은 사람이 적어지는 이 지점부터 시작된다. 이곳에 들어서면 외국인 관광객수는 적어지고, 현지인의 자유분방한 모습에 다케시타도오리와는 조금 다른,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비슷한 패션은 NO! 나만의 끼를 표출하고 싶은 이들의 안식처

우라하라주쿠 골목으로 들어서면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아기자기한 골목과 거리 곳곳에 위치한 유니크한 개인

숍이 그 멋을 더해 준다. 그렇다면 우라하라주쿠의 즐길 거리는 이것 뿐일까. 대답은 'NO!'다. 우라하라주쿠 골목을 거닐다 만나는 젊은이 한 명 한 명이 모두 자신의 '개성'을 패션이라는 수단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코스프레 복장을 한 여성, 시크한 스타일의 남성,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사람, 모두가 비슷한 패션이 아니라 가지각색으로 끼를 표출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취업활동 중에는 단정한 머리와 취업용 정장을 입다가도 하라주쿠와 우라하라주쿠에서는 숨어 있는 '끼'를 분출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우라하라주쿠에서 패션의 열정을 느낀다!

우라하라주쿠 골목 골목에는 인물 사진 촬영에 활용될 수 있는 유니크한 배경이 많다. 본인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거나, 찍히길 기다리는 젊은이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길거리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일본인 청년이 자기도 찍어 줄 수 없냐며 말을 걸어오기도 했다. 우라하라주쿠가 거의 끝나는 지역에서 그들의 끼와 열정은 절정을 이룬다. 본인 취향의 패션으로 무장하고 사진 촬영을 원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사람이 별로 찾지 않는 그곳에서 일본 젊은이들의 열정은 가장 크게 빛나고 있었다.

왜 큰 길이 아닌 작은 골목에서 자신들의 끼를 표출하나

밤이 깊어도 하라주쿠와 우라하라주쿠에 있는 젊은이들의 열정은 '멈추지 않는다(止まれない)'.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하라주쿠의 특성은 이어지고 있다. 오랜 역사만큼 디자이너나 패션 잡지사에서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아이디어를 찾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밤이 깊어 갈수록 개인 숍은 각각의 매력적인 분위기를 발산하며 '우린 같지 않아. 각별하다!'며 다양한 개성을 뽐낸다.

유행을 따른 비슷한 헤어 스타일과 패션 스타일. 이런 흐름 속에서 본인만의 욕구를 표현하면 도태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표출하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끼'! 이 말을 대변이라도 하듯 주말에 홍대 거리에 가보면,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패션으로 중무장한 수많은 젊은이를 볼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패션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 가운데,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면 홍대 거리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우라하라주쿠에 들러 일본 젊은이와 함께 본인의 끼를 100% 표출해 보는 것은 어떨까.

맛차차 마음을 치유하고 쉬어가는 공간

서울숲 인근에 있는 다양한 차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 '맛차차'. 최근에는 조용히 차를 즐기면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신년 호에서는 맛차차의 이예니 대표(중앙), 임승은 매니저와(좌측) 함께 차를 즐기는 방법과 차에 담긴 문화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맛차차를 운영하게 된 계기와 즐길 수 있는 차는.

임승은 매니저 말차 문화는 일본에 가장 많이 남아있지만, 차 문화 자체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한국은 고려 시대에 가장 융성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처럼 3국에서 즐기던 차를 다시금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예니 대표 찻잎은 전부 한국 산을 사용하지만, 퍼포먼스 적인 면을 보여드릴 때는 일본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입차를 보여드릴 때는 한국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보다, 차 문화 자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요가와 함께 즐기는 웰니스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면서 차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차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많은 분이 차 문화에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차를 통해 마음의 휴식을 얻고 숲을 보면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차를 접하게 되셨나요.

이예니 대표 스무 살 때 도쿄와 교토 등에 여행을 가서 처음으로 말차를 접하고 차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맛은 물론이고 클래식하다고 할까, 그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것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차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늘 아쉬웠는데,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일로써 해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차 전문 브랜드로서는 한국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다양한 파우더 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브랜드로 성장하려 노력 중입니다. 쑥으로 된 파우더 티는 물론 제주도, 하동, 지리산 차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승은 매니저 처음에는 한국 차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릴적부터 집안에서 차를 가르쳐주셔서 한국 차는 오래 공부했고, 차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절에서 3, 4년 동안 스님께 사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차 경매 시장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으면서, 다양한 차를 접하고자 중국에서 4, 5년 정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본 차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단기간이지만 우라센케에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차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면.

임승은 매니저 차 수업을 진행하면서 3국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데, 철학적인 사상과 차 문화가 접목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한국 차 문화에서 격식이 없어진 이유 중 하나로 불교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격식보다 '나'라는 사람을 들여다보고 차를 마시는 존재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는 철학적인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가장 자유롭고 자연과 근접한 곳에서 편안하게 차를 즐기는 문화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일본은 법칙과 규율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정제하고 찾아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다도에서도 격식과 질서가 있는 것이 일본 차입니다. 차 문화가 한국에서는 예절이자 음료로 남아있고, 일본은 법도로 남아있지만, 중국의 경우는 예술로서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3국 모두 차를 즐겼던 민족이라 차를 정신적으로 숭상하고자 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식 카페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이예니 대표 일본식 하면 단정하고 깔끔하며 정갈한 이미지가 있는데, 보는 사람에게 부담 없는, 눈이 편안하고 머리를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 일본식 카페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소를 즐기러 왔다가, 차를 내리고 물을 따르는 순간부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유롭게 차를 즐기며 쉬어가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은

이예니 대표 일본 다도를 정립한 센노 리큐(千利休)도 '차는 한잔 우려서 마시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듯이, 여러분도 차를 나만의 방법으로 즐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픈 이래 차를 즐기려는 많은 분이 찾아주셨는데, 공간이 아담한 관계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유롭게 차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예약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입차, 말차 등 3~4개 종류의 차를 즐기는 티코스와 스튜디오에서 요가 등과 함께 차를 즐기는 클래스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토부 교탄고시로 떠나는 힐링 여행

자연이 준 산해진미와 40개 온천 원수

교토에도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교탄고시(京丹後市)는 교토부 북부의 바다와 면해 있어 아름다운 해안선을 볼 수 있는 한편, 산으로 둘러싸인 내륙부에서는 고원이나 사토야마(里山, 마을 숲)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등 바다와 산이 있는 자연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이다. 일본 삼경인 아마노하시다테(天橋立)와 수상 가옥으로 유명한 이네정(伊根町) 등을 포함해서 '바다의 교토 에리어(Kyoto by the Sea)'로 사랑 받고 있다. 인구는 약 55,000명(2018년 10월 말 시점)이며 면적은 약 501k㎡. 간사이국제공항이나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고베(神戸)에서 접근하기 좋으며, 교토 시내에서 전철로 약 2시간 반, 자동차로 약 1시간 반이다. 오사카 시내에서 전철로 약 3시간, 자동차로 약 2시간이면 도착한다.

사계절 풍요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자연

교탄고시는 유네스코 세계 지오파크에서 인정한 '산인(山陰) 해안 지오파크'에 시 전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테이와(立岩)와 뵤부이와(屛風岩), 푸른 동굴로 대표되는 기암, 단층 등 귀하고 특색 있는 지질 유산이 각지에 존재한다. 또 모든 해안선이 국립공원이나 국정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교가미사키(経ヶ岬)에서 다테이와로 이어지는 해안선, 또 일본의 천연기념물 및 명승으로 지정된 명사(鳴砂, 독특한 소리를 내는 모래)로 유명한 고토히키하마(琴引浜), 일몰의 명승으로 알려진 유히가우라(夕日ヶ浦), 그 외 쇼텐쿄(小天橋)와 구미하마만(久美浜湾)의 절경을 볼 수 있는 가부토산 전망대 등 많은 관광명소가 늘어서 있다.

해안가뿐만 아니라 산지에는 기타킨키(北近畿) 최대급의

너도밤나무 숲 등 녹음이 가득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어, 사계절 다른 모습으로 교탄고의 풍요로운 자연을 즐길 수 있다. 자연을 즐기는 방법을 추천하자면 역시 등산이나 하이킹이다. 해안가를 따라 걷는 것도 좋고 산지를 걷는 것도 좋다. 전원풍경이나 거리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교탄고를 걸어보자. 현지 가이드와 함께 가야만 찾을 수 있는 하이킹 코스도 있고, 산 정상에서 커피와 스위츠(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산 정상에서 먹는 커피와 스위츠는 최고다. 눈이 쌓이면 스노슈(Snowshoe, 설피)와 나베 요리가 세트인 체험 플랜도 있어 일 년 내내 즐길 수 있다.

제철 식재료로 즐기는 교탄고의 음식

교탄고시는 풍요로운 자연이 준 식재료가 많은데, 미식 순위에서 특A를 차지한 탄고산 고시히카리(쌀의 일종) 외에 교탄고 배와 교탄고 멜론 등의 과일, 최고급 브랜드인 다이자가니(間人ガニ, 대게의 호칭)와 구미하마카키(久美浜かき, 굴의 일종), 지자케(地酒, 토속주) 등 매력적인 음식이 많다. 교탄고시에서는 매년 11월 6일, 산인 지방 앞바다의 꽃게잡이 금어기가 해제되면, 각 항구에서 잡힌 마쓰바가니(松葉ガニ, 숫컷 대게)가 3월 하순까지 겨울의 미각으로 등장한다. 이 가운데, 교탄고시 단고정 다이자(丹後町 間人)에서 잡아 올린 다이자가니는 불과 5척의 소형배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당일치기 어획물이다. 겨울 바다는 거친 날도 많고 출항할 수 없는 날도 있어서, 경험이 풍부한 어부가 재빨리 잡아 올려 소중하게 가져온 대게다. 다이자가니라는 이름에 걸맞게 크기와 품질이 좋은 대게 만이 어선의 이름이 적힌 녹색태그를 받을 수 있다. 다이자가니는 환상의 대게로 불리며 명성을 얻고 있다.

교탄고시의 겨울은 대게 뿐만이 아니다. 11월경부터 5월의 봄에 걸쳐 구미하마정 구미하마만에서 잡히는 알이 꽉 찬 바다 향 가득한 '굴'도 추천한다. 단고의 산 등 대자연에 둘러싸인 구미하마만에서는 미네랄이 풍부한 맑은 물이 쏟아지고, 양질의 플랑크톤 발생으로 굴이 점점 굵어지면서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순한 맛을 갖게 된다. 시내의 레스토랑이나 숙소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매년 12월경부터 5월까지 기간 한정으로 생기는 굴 가게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왁자지껄하게 신선한 굴 맛을 즐기는 것이다.

교탄고시 하면 신선한 해산물을 떠올리는 분이 많겠지만 딸기, 앵두, 멜론, 복숭아, 포도와 배 등 1년 내내 고품질 과일을 즐길 수 있는 과일 산지이기도 하다. 교탄고시내 노변의 다수 직판장에서 신선한 과일을 판매하는 지역도 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시내의 여러 직판장에서는 과수원에서 딴 복숭아와 수박, 포도, 배 등 제철 과일로 만드

는 스무디와 신선한 주스를 즉석에서 손님께 제공하거나, 과일 따기 체험을 통해 생산자와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슈퍼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탄고시의 자연 속에서 자란 과일을 이곳 생산지에서 먹을 수 있다.

과수원에서 딴 복숭아와 멜론으로 만드는 스무디

교탄고의 생활과 문화를 접할 때, 꼭 체험했으면 하는 향토요리가 단고바라즈시(丹後ばらずし)다. 다른 바라즈시(일본식 회덮밥)와의 차이점은 사바노오보로(鯖のおぼろ, 고등어 통조림을 볶아서 만든 것)를 올리는 것인데, 선명한 색이 마치 케이크 같다. 교탄고 시민에게 단고바라즈시는 축제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친척이나 친구가 한자리에 모여서 먹는 음식이다. 일정한 공통점은 있지만 가정마다 들어가는 재료나 양념이 다르며, 레시피는 대대로 전승되고 있다. 먹다보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웃음을 띠게 된다. 단고바라즈시는 시내의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으며, 실제로 바라즈시를 만드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요리 교실도 있다.

40개 원천이 있는 온천

교탄고시는 교토부 최대의 온천 원수를 자랑하며, 그 수가 40개에 이른다. 웅대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들어가는 온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는 온천, 수질 등 그 특징도 다양하다. 온천 숙박이나 당일치기 온천 모두 충실하며, 당일치기 온천 시설에는 온천뿐만 아니라 레스토랑과 교탄고시의 선물을 구입할 수 있는 매점도 갖추고 있어,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온천을 찾아보기 바란다.

맺음말

한국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교탄고시. 풍요로운 자연과 식재료가 넘치는 바다의 교토 교탄고시에서 온화한 지역민과의 새로운 만남은 물론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분명히 힐링 여행이 될 것이다.

(집필: 교탄고시, 협력: CLAIR, Seoul)

J-POP 부르고, 일본도 가자!

제16회 일본가요대회(본선대회)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일본가요대회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개최된다.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3일간의 예선을 거쳐, 1월 26일에 열리는 본선에 15개팀이 진출하게 된다.
본선 입상자에게는 주일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리는 '한일 문화 캬라반' 참가 기회가 주어지며, 다양한 부상이 준비되어 있다. 또, 본선 당일에는 작곡가이자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미코토(MIKOTO)의 축하 공연이 이루어진다.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자의 수준 높은 노래 실력을 감상할 기회로 본선 관람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이 제공된다. 무료관람.

일시 1월 26일(토) 16:30~18:3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 JAPAN MUSIC CULTURE EXPORT(JMCE)
협력 DK KOREA, ANA, YAMAHA MUSIC KOREA, Nikon, SHINYOUNG WACOAL INC. (주)DREAM BOY,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호텔국도, Grace Inertational, Tokyo Panya, MAGES., 5pb.,C&L MUSIC, 아이와
문의 02-765-3011(내선110,143) jmic@so.mofa.go.jp

J-POP 아티스트 축하공연

프로그램 1. Accepted Blood / 2. 素描の青空 / 3. Spiral Maze / 4. Astral

미코토 MIKOTO

아티스트이자 작곡가로서 활동 중이다. 주요 작품은 DIABOLIK LOVERS, B-PROJECT, MARGINAL#4 , 메이지 도쿄 연가(明治東京恋伽), Scared Rider Xechs 등이 있다. 그 외에도, SKE48, 노기자카 46, Lead 등의 J-POP 아티스트, BTOB, SHU-I 등의 K-POP 아티스트에 악곡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 시츄에이션 CD-메이지 흡혈기담(明治吸血奇譚)-츠키야사(月夜叉(Rejet))의 테마곡 Accepted Blood 삽입곡인 '츠키유키 노 오토 (月雪ノ音)'로 5pb. Records에서 메이저 데뷔한다.
이후 PS VITA '백화백랑 전국인법첩~百花百狼~戦国忍法帖~(D3 PUBLISHER)'의 오프닝 곡 '월하의 노래는 그림자보다도 검고(月下の唄は影よりも黒く)', 엔딩곡 '세월없는 꽃(絶えざる花)', '푸른 산화(蒼い散華)'로 두 번째 싱글을 발매했다.
또, 시추에이션 CD - 메이지 흡혈기담(明治吸血奇譚)-츠키야사 쿠레나이(月夜叉 紅(Rejet))의 테마곡 '새벽의 카르마(暁のカルマ)' 삽입곡 'Aria - 부서질듯한 노래가 연주하는 세계(壊れそうな唄が奏でる世界)'로 세 번째 싱글을 발매했다. 2017년 스마트폰 게임과 애니메이션이 융합된 새로운 프로젝트 '레이어드 스토리즈 제로(レイヤードストーリーズゼロ-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에서 시이나 고(椎名豪)와 함께 주제가 오디션 심사 위원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18년 '울트라 맨 페스티벌 2018' 내 울트라 라이브 스테이지 '지다이오 소메로! 덴세츠노 울트라 쿄다이(時代を染めろ！伝説のウルトラ兄弟)' 삽입 곡 'Red Closer', 'Ready to Beat (※미유미 쉬리 海弓シュリ와 듀엣 곡)'를 불렀다. 2018년 10월부터 TBS, BS-TBS에서 방송된 TV 애니메이션 'BAKUMATSU' 오프닝 테마곡 'Spiral Maze'로 네 번째 싱글 발매. 미코토가 만들어 내는 멜로디, 노래, 그리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재능은 결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온리 원의 독창성을 보여준다. http://5pb.jp/records/mikoto/

일본의 설풍경전 & 전통문화전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는 신년일본문화소개전을 개최한다. 올해는 '일본의 전통문화전'과 함께 일본의 설을 체험할 수 있는 '일본의 설풍경전'으로 새해 첫 손님을 맞이할 예정이다. 또 신년일본문화소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너인 특별공연으로 '일본의 기예 다이도게쇼 제5탄'이 준비되어 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3명의 다이도게 퍼포머가 코믹퍼포먼스, 저글링, 전통 다이도게 등 흥미로운 볼거리로 관객을 맞이한다. 무료행사

일시 1월 11일(금)~22일(화) 10:00~17:30(일요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후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의 02-765-3011(내선120, 123) http://www.kr.emb-japan.go.jp

일본의 설풍경전

일본 정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기모노(着物), 가도마쓰(門松), 구마데(熊手), 가가미모치(鏡餅), 오세치요리(おせち料理) 모형 등 설 소품 전시와 함께 겨울 난방 기구인 고타쓰 체험과 겐다마(けん玉), 와나게(輪投げ), 다루마오토시(だるま落し) 등의 전통놀이도구를 체험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된다. 또 가키조메(書初め : 새해 첫 붓글씨를 쓰는 행사)와 에마걸기(絵馬 : 12간지 동물이 그려진 카드에 소원을 적어 거는 풍습) 등도 체험할 수 있으며, 올 한 해의 운을 점치는 오미쿠지도 뽑을 수 있다.

일시 1월 11일(금)~22일(화) 10:00~17:30(일요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떡메치기(餅つき) 일정

일본의 전통 절구(臼, 우스)와 떡메(杵, 기네)를 이용해 관람객과 함께 떡을 찧어보고 나누어 먹는 행사를 개최한다.

일시 1월 11일(금), 12일(토) 15: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대상 당일 관람객 및 일본문화체험교실 참가 학생

일본의 전통문화전

일본의 전통문화를 기모노, 다도, 마쓰리, 전통미술, 스모, 전통예능, 음식 등 총 7가지 섹션으로 분류하여 실물, 모형, 그림, 사진 등으로 소개한다.

일시 1월 11일(금)~22일(화) 10:00~17:30(일요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일본의 기예 다이도게쇼 제5탄

오랜 세월 일본의 서민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준 다이도게(大道芸). 다이도게는 주로 곡예와 간단한 마술로 이루어져 남녀노소 누구라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베테랑 저글러인 '미쿠모 이오리', 코믹 논버벌쇼로 관객과 호흡하는 '마메' 그리고 전통 다이도게에 새로운 재미를 더한 '미호☆만게쿄'의 즐거운 쇼가 차례로 펼쳐진다. 무료관람.

일시 1월 17일(목) 19:30~21:00, 1월 18일(금) 14:00~15:3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예약 1월 3일(목)~15일(화)까지 이메일 신청
①'다이도게 공연' 관람신청 명기 ②관람 희망 날짜와 시간
③참가자 성명 ④참가자 인원수(1인 다수 신청 가능)
⑤휴대전화번호 기입 후, 이메일(event@so.mofa.go.jp)로 신청.

미쿠모 이오리(三雲いおり) 코믹 퍼포먼스 / 저글링

웃음 가득한 코믹 퍼포먼스! 애드리브 섞인 커뮤니케이션과 뛰어난 기술을 자랑하는 저글링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1994년 덴포잔 월드퍼포먼스 페스티벌 그랑프리를 시작으로 2018년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크라운 마임페스티벌에서 연기상을 수상하는 등 20여년 간 다수의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퍼포머. TV드라마, 영화, 예능프로그램 등에도 출연하여 친근한 외모와 뛰어난 입담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미호☆만게쿄(ミホウ☆万華鏡) 전통 다이도게 / 라이브페인팅

일본의 다이도게 연구팀에 소속되어 그곳에서 익힌 전통 기예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만화경과도 같은 변화무쌍한 세계를 보여주는 퍼포머. 특기인 페이스페인팅 기술을 이용한 라이브페인팅 등 다른 퍼포머에게 없는 기예를 선보인다. 화려한 의상을 두른 발랄, 쾌활한 아줌마 퍼포머.

퍼포머 마메(ぱふぉーまーまめ) 저글링 / 판토마임 / 마술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정과 움직임만으로 웃음을 유발시키는 비주얼 코미디 퍼포머. 친근하고 독특한 캐릭터로 '키득' 웃음을 던져주는 비주얼 코미디쇼. 속도감 있는 저글링은 최고의 볼거리! 2015년부터 '다마센터다이도게페스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페스티벌 in 도쿄' 등에 출연했으며 2018년 도쿄도에서 인증하는 헤븐아티스트 자격을 취득했다.

일본 차(日本茶)워크숍 어서 오세요! 일본 차의 세계로

현재 한국에서 일본 차 대사로 활동 중인 오가타 준코(尾形純子) 씨와 일본 차의 매력을 알아보는 워크숍. 센차(煎茶)를 맛있게 달이는 방법과 포인트를 참가자가 직접 큐스(急須, 주전자 모양의 다기)를 사용해 체험한다. 또 센차는 아이스티로도 즐길 수 있는데 아이스 센차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도 소개한다. 호지차(焙じ茶) 쿠키를 먹으며 일본 차를 즐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일시 1월 16일(수), 17일(목) 14:00~15:3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예약 24명, 1월 7일(월)~14일(월)까지 이메일 신청(선착순 마감)
①'일본 차 워크숍' 참가 신청 명기 ②참가 희망일
③참가자 성명 및 연령(1인 2명까지 신청 가능)
④휴대전화번호 기입 후, 이메일(event@so.mofa.go.jp)로 신청(3일 안에 접수 확인 메일 발송)

초등학생 일본문화체험교실

겨울방학 일본문화체험교실 프로그램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직원의 일본문화 소개, 일본의 토픽 동영상 관람, 일본의 설 놀이 체험 등으로 구성되며, 11일과 12일은 떡메치기도 함께 진행된다.

일시 1월 11일(금), 12일(토) 14:00
1월 14일(월), 21일(월), 22일(화) 11:00
1월 19일(토) 11:00, 14: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예약 매회 18명, 12월 26일(수)~각 체험일 2일 전까지 이메일 신청(선착순 마감, 개별 통지)
①'일본문화체험교실'신청이라고 명기
②참가 희망일
③참가자 성명(1인 2명까지 신청 가능) ④학년
⑤보호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 후,
이메일(event@so.mofa.go.jp)로 신청.

새해맞이 일본영화상영회

고대부터 인간과 함께 해온 반려동물…. 그들과 인간인 우리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왔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이며, 또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반려동물 유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그들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신년 일본영화상영회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반려동물, 그리고 우리'를 테마로 상영회를 개최한다. 선착순 입장.

시간 14:3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상영 일정	영화 제목
1월 9일(수)	퀼 クイール
1월 14일(월)	안녕, 쿠로 さよなら、クロ
1월 15일(화)	히마와리와 나의 7일 ひまわりと子犬の7日間
1월 21일(월)	우리 개 이야기 いぬのえいが
1월 22일(화)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 レンタネコ
1월 24일(목)	고양이는 불러도 오지 않는다 猫なんかよんでもこない

宮城オルレ OPEN!!!

2018.10.7, 2018.10.8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십두지두 좌충우돌 유학 여행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学)보고서

고양이 후쿠짱의 우렁찬 모닝콜에 아침이 밝아왔다. 후쿠짱은 쓰나미 직후에 태어나 올해 7살, 행복의 복(福) 자를 따서 후쿠짱, 만나는 모든 이에게 행복을 주라는 의미다.

야옹~

하아~

어촌에서 민박체험을 하며 여느 호텔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과 즐거움을 느꼈다.

지금은 평온하지만 그때는 여기까지도 쓰나미의 피해가 있었어요.

민박체험 굿초이스!

미야기올레 그 두 번째 코스인 일본의 3대 절경이 있는 오쿠마쓰시마(奥松島) 코스가 오픈하는 날. 개막식장까지 이동 중에 본 것은 바닷가 옆 휑한 공여지와 같은 모양의 집들.

개막식장 주변은 지난 쓰나미 피해로 이주하신 분들이 살고 있는 새롭게 생긴 마을이에요.

첫날에 느끼지 못했던 묘한 이 느낌은 가이드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납득이 되었다.

평화로운 이 어촌 마을을 쓰나미가 쓸고 갔던 7년 전 그날을 나는 기억한다.

지진과 쓰나미뿐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재까지 있었죠. 완전 삼중고였어요.

*이유미 제주올레 일본지사장, 미야기올레 어드바이져의 증언.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올레길을 내고 싶다는 미야기현의 제안에 제주올레가 코스 개발에 참여하고 철학 등을 공유하며 2년여 만에 개장된 것이다.

점심으로 이 지역의 특산물인 김을 넣은 우동에 김을 넣은 닭튀김, 미나미 시마바라의 소면까지... 든든히 배를 채웠다.

금강산도 식후경~!

국물까지 호로록~

그러나! 문제는 이때부터, 물집 잡힌 발로 걷는다는 것, 도중에 하차하려 했으나 끝까지 걸어보자는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몸쓸 저질 체력... 나무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살 것 같은데...

후덜덜~

끙~

이런 내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어느 제주올레꾼 선생님이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이름 모를 어느 일본 규슈올레꾼 할아버지께 바디랭귀지를 총동원하며 등산 스틱을 빌려오셨고 덕분에 나는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다.

일본 삼대절경 마쓰시마 오다카모리(大高森) 언덕에서 눈물이 왈칵~

석양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피니시 지점에서의 서프라이즈~!

짝짝짝 수고하셨어요~

어흑

울고 싶다... 아... 내가 해냈어~ 이 완주의 기쁨.

드디어 만났다~ 그 탤런트의 이름은 이미 소문난 올레꾼 류승룡 씨!

빛나는 후광~

나, 울다 웃으면? ㅋㅋ

자연이 복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상처 받은 주민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미야기올레는 앞으로 8개의 코스를 추가 조성 계획으로 쓰나미로 침체된 곳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라고 한다. 미야기현의 부흥과 회복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님의 한말씀.

maidoookini@naver.com